

# 古典諷刺詩論 試考

김 성 진\*

##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諷刺와 賦·比·興    |
| II. 諷刺의 語義      | IV. 古典 諷刺詩論의 展開 |
| III. 諷刺詩論의 基底   | V. 맺음말          |
| 1. 詩經國風觀과 美刺綱論說 |                 |

## I. 머리말

1930년대에 최재서가 위기에 처한 朝鮮文壇의 타개책으로 <諷刺文學論>을 제시한 이래로 풍자문학과 관련된 논문이 적지않게 발표되었다. 풍자문학 그 자체에 대한 논의도 있었고<sup>1)</sup> 풍자시론에 대한 論考도 있었지만<sup>2)</sup>, 대개는 연암이나 채만식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小說文學의 풍자성 내지 풍자기법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서구의 文藝理論에 의거한 것들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古典詩學에 諷刺論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풍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오랫동안 詩經이 文學의 典範이 되어왔고, 文學의 公利性이 증시 되어온 때문이다.

古典詩學에 보이는 諷刺詩論이 西歐의 理論에 비해 分析的이지 못하

\*부산대 인문대학 강사

- (1) 최재서: 풍자문학론, 최재서평론집 (서울: 청운출판사, 1961) pp.185~198.  
이명근: 풍자문학론, 경기대논문집2, 1974.  
김중하: 풍자문학론서설, 국어국문학12, 부산대 국문과, 1975.  
구창환: 풍자문학론고, 국어교육연구1, 전북대 국어교육과, 1975.  
소재영: 한국풍자소설론, 숭전어문학5, 숭전대 국문과, 1976.
- (2) 이유식: 전후의 한국풍자시론, 현대문학 1965년 5월호.  
이재선: 풍자시론 서설, 청구대 논문집6, 1963.

다고 하나 그렇다고 방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文學作品이 사회상의 반영이고 시대정신의 소산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고전작품 연구의 경우에는 당대의 文學觀이 批評의 準據로 적용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古典詩學에서의 諷刺詩論에 대한 깊이있는 연구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漢詩를 포함한 우리의 詩歌文學에는 풍자성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諷刺詩나 諷刺小說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자 자체에 대한 논의는 빈약한 편이다. 그것도 朝鮮後期詩話에만 집중된 감이 있고, 자세한 언급도 실려있지 않다. 이런 이유로 해서 본고에서는 우선 諷刺의 語義와 諷刺論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詩經國風觀과 美刺風喻說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그 修辭的 特質이라고 할 수 있는 比·興과 관련지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古典詩話에서 諷刺詩로 언급되고 있는 詩의 性格 究明을 통해 작품을 選한 문인의 諷刺觀을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풍자론과 관련된 언급은 시경의 風과 관련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白居易(唐)나 程廷祚(清)의 경우에는 비교적 精緻한 이론을 남기고 있으나 그 근처에도 역시 詩經國風觀이 깔려 있다. 따라서 시경국풍관이 본고의 핵심이 될 것이나, 그 이외에 풍자와 관련된 언급을 몽땅그려 살펴보고자 한다.

## II. 諷刺의 語義

동양에서의 諷刺에 대한 논의는 孔子의 諷諫論에서 비롯된다.

孔子가 말하길, “忠臣이 임금을 諫하는 데에는 다섯가지의 뜻이 있으니 첫째는 正諫하는 것이요, 둘째는 懲諫하는 것(꾸밈이 없는 것)이며, 셋째는 降諫, 넷째는 直諫이며, 다섯째는 諷諫이니 오직 임금을 헤아려 행하는 것이지만 나는 諷諫을 따르겠다.”고 하였다.<sup>3)</sup>

(3) 「孔子家語」卷3 辯政 第14, 孔子曰 忠臣之諫君有五義焉 一曰諶諫 二曰懲諫 三曰降諫 四曰直諫 五曰諷諫 唯度主而行之 吾從諷諫乎.

위에서 말한 諷諫에 대해, 明나라의 何孟春은 ‘事物에 假托하여 풍자하여 말하는 이는 죄가 없게 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족히 警戒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4)</sup>라 補注하고 있다. 魏의 王肅 역시 ‘죄받는 것을 멀리하고 害를 피하는 것’<sup>5)</sup>이라 했다. 여기서 말한 것은 諷諫이기는 하나 諷諫은 諷에 의한 諫言이므로 풍자의 뜻을 含意한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揚雄의 〈甘泉賦〉注에 ‘감히 正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諷이라’<sup>6)</sup> 하였고, [玉篇]에서는 ‘諷은 비유이다’<sup>7)</sup>라 하였다. 그리고 [廣雅] 釋詁四에서는 ‘諷은 諫하는 것이다’<sup>8)</sup>라 하였고, [集韻]에서는 ‘諷은 告하는 것이다’<sup>9)</sup>라 하였다.

이와같은 訓釋들로 보아 諷은 ‘교훈이나 경계의 목적을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諫하거나 告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刺는 책망하는 것이다. [詩經] 大雅 瞻印章의 ‘天何以刺’에 대한 [集傳]의注에 ‘刺는 責하는 것이다’<sup>10)</sup>라 하였고 [廣雅] 釋詁에서는 ‘刺는 警戒하는 것이다’<sup>11)</sup>라 하였다. 이와같은 예를 통해 實望한다는 刺의 성격을 알 수 있겠다.

刺는 文體名이기도 하다. 劉勰은 [文心彫龍]에서 文章樣式을 21類로 나누는 후 다시 細目으로 나누면서 刺에 대해 ‘刺는 達이다. 詩經에는 諷刺가 있고, 周禮에는 三刺가 있는데 사실을 서술하여 서로 통달하는 것이 마치 바늘이 結目を 누벼가는 것과 같다’<sup>12)</sup>고 하였다. 이밖에 [大漢和辭典]에서는 〈解字〉에서 ‘刺는 假借하여 責이나 諫, 또는 斯 등의 뜻으로 쓴다’<sup>13)</sup>고 하였다. 이러한 용례들로 보아 刺는 ‘實望이나 諫言의

(4) 위의 같은 곳, 托事以諷 使言之者無罪 聞之者 足以戒也.

(5) 위의 같은 곳, 諷誦依違遠罪避害者也.

(6) 揚雄의 〈甘泉賦〉의 ‘奏甘泉賦以風’에 대한 注의 ‘不敢正言 謂之諷’라 하였다.

(7) 「玉篇」, 諷 譬喻也.

(8) 「廣雅」釋詁4, 諷 諫也.

(9) 「集韻」, 諷 一曰告也.

(10) 「詩集傳」, 刺 責也.

(11) 「廣雅」釋詁, 刺 箴也.

(12) 「文心彫龍」卷5 書記 第25, 刺者 達也 詩有諷刺 周禮三刺 事彼相逢 若針之通結也.

(13) 諸橋徹次; 「大漢和辭典」卷2 刺條, ‘假借して, 責・諫・斯 等の意とする.

뜻을 가지며 諷과 마찬가지로 비유로써 뜻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諷과 刺는 서로 넘나드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諷만으로도 풍자란 뜻으로 이해되고 刺만으로도 풍자의 뜻을 가지게 된다. [詩集傳]이나 [詩經孔學考] 등에서는 모두 풍자적 시를 '刺也'라고 注하고 있음이 그 좋은 예이다.

풍자는 '비유적인 표현에 의한 諫言'이란 성격으로 해서 古文獻에는 諷諫이나 諷諭로 나타나지만 그 함의는 동일한 것이다. 정약용의 '아래에서 風으로 썰르는 것은 諷諫이며 諷刺요, 諷諭이니 그 음은 去聲이 된다'고<sup>14)</sup>하는 진술은 諷諫과 諷刺, 諷諭가 별다른 의미의 차이없이 쓰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諷刺의 字義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간언하면서 죄입는 것을 피하고 해를 입지 않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으로 넌지시 돌려서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III. 諷刺詩論의 基底

#### 1. 詩經國風觀과 美刺諷諭說

[詩經]은 오랫동안 詩의 典範으로 중시되어 왔다. 특히 國風의 風에 대한 견해는 후세의 文學觀을 크게 좌우하였다. 詩經國風觀의 핵심은 '上以風化下 下以風刺上 主文而譎諫 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戒 故曰風'(이로써 위에서 아래를 風化하며 아래에서 위를 풍자한다. 완곡하게 다듬어진 말로써 넌지시 간하니 말하는 자는 죄받지 않으며 듣는 자는 족히 경계삼을 만하다. 그러므로 풍이라 한다.)라 한 詩序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크게 보아 上以風化下를 중시하는 교화론적 입장과

(14) 丁若鏞; 詩經講議補遺, 「與猶堂全書」二, p.461 (이하 全書II, p.461로 표시함).  
'下以風刺上者 諷諫也 風諭也 其音爲去聲.'

下以諷刺上の 의미를 중시하는 諫書論으로 대별된다. 전자의 대표적인 경우는 朱子이고 후자의 대표적인 예는 孔安國이다. 본고에서 논하게 될 학자들 역시 대개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孔安國은 시경전체를 간서론적 입장에 해석하였는데 그 要諦는 美刺諷諭說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의 효용에 대한 견해를 대별해보면 倫理政敎說과 美刺諷諭說, 그리고 發憤抒情說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sup>15)</sup> 하지만 倫理敎化는 美刺諷諭의 근본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美刺諷諭는 倫理敎化를 달성하는 수단 하나라 할 수 있다.

미자풍유설은 특히 漢初의 說詩者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申培, 薛濃, 后蒼과 같은 이들은 <關雎>처럼 명백히 평범한 民歌를 '君主를 풍유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심지어는 '시대를 풍자하는 것'이라고 까지 하였다.<sup>16)</sup> 鄭玄 역시 詩譜序에서 '功德을 論頌하는 것은 그 아름다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며 過失을 譏刺하는 것은 그惡함을 匡敎하고자 하는 것'<sup>17)</sup>이라 하여 美刺諷諭의 詩觀을 드러내었고 六禮論에서는 '詩라고 하는 것은 노래에 실은 풍자의 소리이다'<sup>18)</sup>라 하여 풍유를 시의 주된 효용으로 지적하고 있다.

美刺諷諭, 즉 풍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풍자를 하는 이의 도덕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다. 그 대상이 누구이던 상대방의 그릇됨과 스스로의 타당성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바른 곳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이다. 王逸(東漢)이 <離騷經序>에서 '홀로 道德에 의지하여 임금을 諷諫했다'<sup>19)</sup>고 한 것은 이와같은 풍자의 성격을 지적한 것이다.

앞의 논자들에 비해 楊載(元)의 견해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풍간의 시의 要諦는 事物에 느껴 말을 陳述하되 忠厚가 간축하며 풍유함이 甚切하면서도 性情의 바름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事物

(15) 曾永義·柯慶明 編, 中國文學批評資料彙編1, 緒論5, <文學의 功能>

(16) 위의 같은 곳

(17) 鄭玄; 詩譜序, 論功頌德 所以將順其美 刺過讎失 所以匡敎其惡

(18) 鄭玄; 六禮論, 詩者 絃歌諷諭之聲也

(19) 王逸; 楚辭序, 獨依道德 以諷諫也

에接觸하여 슬퍼하되 원특한 말이 없다.…… 옛사람들은 무릇 풍간하고자 할 때에 이것을 빌어 저것에 비유하는 것이 많았다. 臣下로서 君主에게 納得될 수 없으면 아내가 男便을 사모하는 것을 빌거나 혹은 事物에 기탁하고 비유를 펴서 그 뜻을 通하게 하고자 하였다.……<sup>20)</sup>

諷諫의 요체를 感事陳辭로 본 것은 풍자의 우의적 성격을 지적한 것이며, 諷諫의 詩가 대개 임금에 대한 直諫을 피해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는 형식을 빌거나 사물에 가탁하는 것과같은 비유적 방법을 사용함을 말하고 있다. 또한 性情의 바름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여 풍자하는 이의 도덕적 우월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풍자란 대개 假托에 의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그릇됨을 지적하여 정치의 선함과 性情의 바름을 추구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葛洪은 [抱朴子] 解嘲篇에서 ‘古詩는 과실을 풍자했기 때문에 유익하고도 귀하였으나 요즈음의 시는 오로지 허랑한 칭찬만 있는 때문에 해롭고도 천하다’<sup>21)</sup>고 했던 것이다. 范德機(元)가 詩의 品格을 15格으로 나누면서 ‘頌中有諷格’과 ‘美中有刺格’을 맨 앞에 내세운 것도<sup>22)</sup> 諷刺의 功能을 높이 評價했기 때문이다.

## 2. 諷刺와 賦·比·興

諷刺가 詩의 指向이라면 賦·比·興은 그 指向의 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賦·比·興의 意味에 對해서는 學者에 따라 의론이 분분하여 일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賦는 基本的이며 常用되는 수사법이다. 賦는 직접적으로 外在事物을

(20) 楊載：詩法家數 諷諫條，(「歷代詩話」第15冊)，諷諫之詩要 感事陳辭 忠厚懇惻 諷論甚切 而不失情性之正 觸物感傷 而無怨對之詞……古人 凡欲諷諫 多借此以喻 臣不得于君 多此妻以思夫 或託物陳喻 以通其意

(21) 葛洪：「抱朴子」解嘲篇，古詩刺過失 故有益而貴 今詩純虛譽 故有損而賤也

(22) 范德機는「歷代詩話」第15冊에 실린 <詩學禁巒>에서 시의 품격을 頌中有諷格, 雅意詠物格, 一字貫篇格, 起聯應照格, 一意格, 雄偉不常格, 想像高唐格, 撫景寓數格, 專敘已情格 등으로 나누고 있다.

敍述하여 감정을發揮시키는 作詩技術이다.

- (2) 比는 性質이 비슷한 外物을 연상하여 內心의 感情과 意境을 비유하고 人間의 各種形態의 生活을 비유하는 作詩技術이다. 이것은 修飾의 範圍가 簡潔하며 읊으려는 思想·感情을 갖고 비유할 대상을 찾는 特性을 갖는다.
- (3) 興은 意味上, 主題와 關聯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主題와 무관한 사물, 혹은 有關한 사물으로써 詩句를 유발시키는 것이다.<sup>23)</sup>

賦는 직설적이기 때문에 풍자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 하지만 賦法의 영향을 받은 漢代의 賦는 揚雄의 例에서처럼 풍자성이 강하니만큼, 賦라고 해서 반드시 풍자와 거리가 멀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比·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다는 것이다.

앞의 인용문에서도 諷諫은 ‘托物陳喻’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托物寓情하는 比·興을 이야기한 것이다. 班固가 司馬相如傳에서 司馬相如의 虛辭濫說을 시경의 諷諫과 비슷한 것으로 지적한 것도<sup>24)</sup> 이러한 比·興과 諷刺의 상호연관성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虛辭濫說이란 司馬相如 詩文의 寓言의 특성을 지적한 것으로 寓言과 比·興이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풍자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白居易의 말은 寓言과 比·興, 그리고 諷刺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

莊子·列子の 寓言과 國風·離騷의 比·興은 별레나 새 등에 假托하여 뜻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으니, 詩義는 關雎와 鵲巢에서 시작되고 道說은 鯤·鵬·蜩·鷦와 같은 종류를 알세운 것 등이 그것이다. 내가 閑居하면서 興에 거워 우연히 12장을 지었는데 자못 志怪·方言과 비슷하다. 章마다 웃음을 자아내는데 웃음 이외에 또한 노쇠하여 封執이 미혹되는 것을 스스로 경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up>25)</sup>

(23) 金英美：詩經賦比興研究，석사학위논문，숙명여대 대학원，1984.

(24) 班固；「漢書」可馬相如傳贊，相如 雖多虛辭濫說 然其歸引之於節儉 此與詩之諷諫何異

(25) 「全唐詩」卷467，白居易37〈禽蟲十二章〉序，莊列寓言 風騷比興 多假蟲鳥 以爲蓋蹄 故詩義始於關雎 鵲巢 道說先乎鯤鵬蜩鷦之類是也 余閑居乘興 偶作一十二章 頗類志怪放言 每章可致一哂 一哂之外 亦有以自警其衰 叢封執之惑焉

위의 서술을 통해 우리는 寓言과 比·興이 유사한 수사형식이며 별레나 새 따위의 동식물에 가탁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한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풍자를 통한 교훈의 효과를 드러낸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比·興과 諷刺는 이렇듯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다음과 같은 茶山의 말은 比·興과 풍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개 風詩에만 比·興이 있고 雅頌에는 이것이 없다. 雅는 모두가 正言이고 頌은 오직 찬미인지라 그 글이 은미하게 감추는 데 힘쓰지 않으니, 어찌 賦·比·興의 구별이 있겠는가? 風이란 諷이나 義理를 늘어놓아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며 혹은 사물에 빗대고 비슷한 同類에 붙이여 스스로 깨닫게 하며, 혹은 심원한 것에 가탁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한다. 이것이 모두 풍시의 體이다.<sup>26)</sup>

다산은 風詩에만 比·興이 있고 雅頌에는 比·興이 없다 하여 風詩와 雅頌을 구분하는 변별요소로서 比·興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풍시가 풍시답기 위해서는 比·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白居易와 茶山 모두 比·興을 구분하지 않는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양자는 구별이 애매하다. 시경에 대한 주석들을 분석해 보더라도, 특히 풍자적인 시에 있어서 比와 興이 학자마다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그만큼 比와 興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양자는 다른 형식이며 興보다는 比가 諷刺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朱子は 양자를 구분하여,

比는 하나의 사물로써 다른 사물을 비유하는 것인데 지시하는 바의 일이 항상 言外에 있다. 興은 彼物을 빌어 此物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그 일은 항상 下旬에 있다. 다만 比는 뜻이 간절하더라도 도리어 천박해지고

(26) 全書II, p.463, <詩經講義補遺>, 蓋惟風詩有賦比興 雅頌無之也 雅皆正言 頌惟贊美 其文不務隱微 安有賦比興之別 風者 諷也 或鋪陳義理 使自喻之 或比物連類 使自喻之 或託寓深遠 使自喻之 此皆風詩之體也

興은 뜻이 闕達하면서도 그 맛이 유장하다.<sup>27)</sup>

比는 그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른 사물에 假托하게 되며, 뜻하는 바가 言外에 있다고 하였으니 보다 諷刺에 접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興은 彼物을 빌어 此物을 이끌어내고 그 사물이 항상 下句에 있다고 하였으니 托物寓情하는 諷刺보다는 효과적인 논리전개를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比는 잘못을 보고 감히 지적할 수 없으므로 비슷한 同類를 취해 말하는 것이며, 興은 아름다운 일을 보고 媚諛를 꺼려 착한 일을 취하여 비유로써 이를 권하는 것이다.’<sup>28)</sup>라고 한 鄭康成의 진술을 통해 보더라도 풍자와 가장 밀접한 것은 바로 比라고 할 수 있겠다.

#### IV. 古典 諷刺詩論의 展開

孔子的 諷諫說과 詩經國風觀은 東洋詩學의 근간을 이루면서 후대의 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풍자를 내세운 作品으로 漢나라 韋孟의 諷諫詩가 있고 晋나라 趙整의 諷諫詩가 있으며 宋玉의 諷賦가 있다. 뿐만 아니라 歷代詩話, 續歷代詩話, 清詩話 등에는 풍자시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실려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풍자에 대한 언급이 그다지 많지 않다.

중국의 대표적 풍자시인으로 屈原, 杜甫, 白居易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풍자시론은 대개 이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경시의 풍자성에 관한 언급이 많음은 두말할 나위없다.

중국의 풍자시론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은 白居易이며 그는 우리나라 풍자시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자신이 직접

(27) 失簫：〈詩綱領〉，比是以一物比一物 而所指之事常在言外 興是借彼一物 以引起此事 以其事常在下句 但 比意雖切而却淺 興意闕而味長， 陳夢雷(清) 編，「古今圖書集成」 經籍部 卷152 詩經部59冊 9葉에서 재인용.

(28) 「欽定詩經傳說彙纂」 卷首下 綱領 面7， 鄭氏康成曰， 比 見失不敢斥言 取比類以言之 興 見美嫌於媚諛 取善事以上喻勸之

諷諭詩 150여 수를 짓고 이를 자기 全集의 첫머리에 놓으면서 諷諭詩는 兼濟之志이며, 諷諭者는 義激而言質이라 했다. 풍유는 시는 부족한 이를 도와 온전하게 하고 권하여 善한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즉 '補察得失'과 '勸善懲惡'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뜻을 펴기 위해서는 그 시어를 質朴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문장을 갈고 닦으며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는 詩歌가 勸懲과 補察의 공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대의 採詩官 制度가 부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諷諭精神의 상실이 採詩官제도의 폐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채시관이어,  
시를 채록하고 노래를 들어 사람들 말을 이끌어내오.  
말하는 이 죄없고 듣는 이는 귀감으로 삼아  
위와 아래 서로 통해 모두가 태평했네.  
周 망하고 秦나라 흥하여 隋나라에 이르기까지  
十代에 걸쳐 채시관을 두지 않았네.  
제사 때 모당에서 부르는 노래는 임금님을 찬미하고  
樂府의 고운 노래는 임금을 즐겁게 해줄 뿐.  
일깨워주고 꾸짖는 말은  
萬句千章에 한 字도 없었네.  
꾸짖고 나무라는 구절이 없음은 물론이고  
점차로 조정에는 諷刺하는 말이 자취를 감추었네.

采詩官  
采詩聽歌導人言  
言者無罪聞者誠  
下流上通上下泰  
周滅秦興至隋氏  
十代采詩官不置  
郊廟登歌贊君美  
樂府艷詞悅君意  
若求興喻規刺言  
萬句千章無一字  
不是章句無規刺  
漸及朝廷絕諷諷

.....  
탐관오리들 백성을 괴롭혀도 꺼리낌 없고  
간신배들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도 두려운 줄 몰랐네.  
그대여, 厲王이나 胡亥의 말년을 모르는가.  
신하에게 좋은 것은 임금에게 이롭지 않네.  
임이시여, 임이시여, 내 말씀 들으소서.  
막히고 가려진 것을 열어 人情에 통하시려거든  
먼저 백성들 노래를 들어 諷刺를 구해야지.

.....  
貪吏害民無所忌  
奸臣蔽君無所畏  
君不見厲王胡亥末年  
群臣有利君無利  
君兮君兮願聽此  
欲開壅蔽達人情  
先向歌詩求諷諷<sup>29)</sup>

(29) 「全唐詩」卷427, 白居易4 <采詩官>

위 시의 문면으로 보아서 白居易는 風의 두가지 기능 중 上以風化下 하는 도덕적 감화의 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下以風刺上의 시대비판만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탐관오리와 간신배들의 폐해를 없애고 막히고 가려진 것을 열어 인정에 통하려거든 풍자의 뜻이 담긴 詩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채시관제도도 부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白居易와 동시대의 인물인 元愼 역시 諷諭詩를 중시했는데, 비교적 복고적인 白居易에 비해 元愼은 융통성과 創新을 중시하였다. 이밖에 程廷祚(淸)가 풍자에 관심을 갖고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sup>30)</sup>

풍자시론과 관련하여 관심을 끄는 조선조의 문인들로서 權鞮, 李濟臣, 張維, 洪萬宗, 申景濬, 丁若鏞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교화론 위주의 주자학적 시경론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의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心性의 도야와 溫柔敦厚를 강조하는 근엄한 禮敎主義에서 벗어나 통치자의 잘잘못과 시대의 절실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 노력했던 脫禮敎主義者들에 의해 주로 풍자론이 제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권필은 大北派와 小北派의 당쟁을 풍자한 <宮柳詩>로 인해 光海君의 親鞫을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자신의 풍자시론을 밝히고 있다.

대저 옛날의 시인들은 興에 寄托하여 諷諫하는 일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신도 이를 모방하여 이 시를 지었읍니다. 叔英은 布衣로서도 감히 이와같이 말하는데도 조정에는 直言하는 자가 없읍니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諸公을 規諷하여 그들이 힘쓰는 바가 있기를 바란 것입니다.<sup>31)</sup>

조정이 잘못된 것을 보고 이를 풍자하여 그들이 면려하기를 바란다고 한 것은 시인의 본분이 풍간에 있으며, 시가 다만 음풍농월하며 개인적 흥취를 그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아픔과 백성들의 곤고함

30) 「靑溪集」 卷一 詩論六과 卷二 詩論十三은 모두 풍자에 관한 것이다.

31) 光海君日記 卷52 四年壬子 四月條, 大抵 古之詩人 有托興規諷之事 故臣欲做此爲之 以爲叔英以布衣敢言如此 而朝廷無有直言者 故作此詩 規諷諸公 冀有所勉勵云.

을 대신하여 알리는 데 있다고 본 때문이다. 〈鬪狗行〉, 〈可歎〉, 〈感懷三首〉, 〈夜坐醉基走筆成章三首〉, 〈古意八首〉, 〈驅車兒〉, 〈寓言〉, 〈龔兒行〉 등은 권필의 대표적인 풍자시들이다. 허균이 [國朝詩刪]에서 권필의 시에 대해 ‘善諷’, ‘寓意’ 등으로 평한 것은 다 권필시의 이러한 풍자성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仁祖實錄]에 실려 있는 ‘무릇 우울하고 불평스러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로써 이를 드러내었고 매양 조정의 득실을 들을 때마다 또한 시를 지어 이를 비웃었다’<sup>32)</sup>는 지적이나 張維의 〈石洲集序〉에 실려 있는 ‘광해군의 정사가 어지러우므로 여러차례 위험을 무릅쓴 直言으로써 權貴를 거슬렀다’<sup>33)</sup>라는 지적 등은 다 권필시의 이러한 풍자성을 말한 것들이다.

[仁祖實錄]의 권필에 대한 인물평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권필의 경우, 풍자를 유발하는 요인을 두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우울하고 불평스러움’과 같은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비탄이나 이해득실로 인한 개인적 측면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정’의 득실과 같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강개이다. 그리고 그 어조상의 특질로서는 ‘비웃음’을 들고 있다.

다음의 시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권필의 날카로운 비판이 寓意的으로 표현된 그의 대표적인 풍자시이다.

누가 개에게 뼈다귀를 던져	誰投與狗骨
못 개들이 저렇게 사납게 다투게 하는가	群狗鬪方狠
작은 놈은 반드시 죽고 큰 놈도 다치게 되니	小者必死大者傷
도둑은 옛보아 그 틈을 타려 하네.	有盜窺竊欲來覺
주인은 무릎 안고 한 밤중에 울고 있고	主人抱膝中夜泣
하늘에선 비가 내려 담장이 무너지니 온갖 근심 모여드네.	天雨墮壞百憂集 <sup>34)</sup>

먹을 것이라는 공통된 특질을 축으로, 정권을 놓고 싸우는 당쟁을 뼈

32) 仁祖實錄 卷1 元年 四月 庚午, 凡有壘鬱不平 必以詩發之 每聞朝家得失 亦作詩嘲之

33) 張維：「谿谷集」卷6 面32 〈石洲集序〉, 光海政亂 屢以危言忤權貴

34) 「石洲集」卷2 面10 〈鬪狗行〉

다귀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개의 싸움에 가탁하여 풍자하고 있다. 小狗는 小北, 大狗는 大北을 의미하며 뼈다귀는 근본적이거나 절실한 문제가 아닌 공리공론의 당론을 의미한다. 집이 나라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주인은 임금이고 도적은 왜적을 의미한다. 절대군주를 풍자하면서 무릎 안고 우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위인으로 비꼬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로 다투면 작은 놈은 반드시 죽고 큰 놈도 다칠 것이니 무의미한 싸움은 그만두라는 경계의 말도 잊지 않고 있다. 그가 宋錫祚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스로를 말하여 ‘성품이 疎誕하여 時俗과 맞는 것이 적으며 매양 으리으리한 저택을 지날 때마다 반드시 침을 뱉으며 지나가고’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세상사람들이 현자라고 여기는 자를 만나면 천한 종처럼 여겼다<sup>35)</sup>고 한 것으로 보아 권필의 경우에는 그의 성격부터가 풍자에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권필의 「石洲集」에 序를 쓴 바 있는 張維 역시 풍자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남기고 있다.

위로는 時事의 艱危함에 감개하고 아래로는 신세의 궁약함을 슬퍼하면서 得失을 살펴보고 豐約에 따라 슬퍼하기도 기뻐하기도 한다. 天時와 人事 가운데 크거나 작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무릇 눈에 보여서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면 하나같이 모두 시에 나타내는데 그 말은 간절하고 그 뜻은 심원하며, 그 일은 핵심적이면서도 모두 갖추었고 그 풍자는 微婉하면서도 숨기지 않았다.<sup>36)</sup>

풍자를 논하기 위한 글은 아니나 時事에 대한 感慨나 개인의 궁약에 대한 비탄을 노래한 것이면서 풍자적이라면 결국 풍자시에 관한 논의인 셈이다. 그럴 경우에 시의 뜻이 심원하며 시어는 간절하여야 하며 정곡

35) 「石洲別集」 卷2 面1 <答宋弘甫書> ‘僕受性疎誕 與俗寡諧 每遇朱門甲第 則必唾而過之’ ‘每遇紆青紫 舉世以爲賢者 則鄙之如奴虜’

36) 「谿谷集」 卷5 <詩史序>, 上而感時事之艱危 上而傷身世之隴窮 俯仰得朱 悲歎豐約 天時人事大小遠邇 凡觸於目 而感於心者 一皆發之於詩 其言切 其志深 其事核而備 其諷刺而不隱

을 찌르면서도 諸體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풍자의 요체는 완곡하되 할 말을 남김없이 다하는 데 있다고 했다.

李濟臣은 시인이 시를 읊조림에 있어 무릇 풍자의 뜻을 머금은 것을 奇偉한 것으로 여긴다<sup>37)</sup>고 하면서 그러한 시의 예로서 김시습이 姜太公 釣魚圖에 題한 시와 申光漢이 東湖亭에 題한 시, 그리고 曹植이 政堂梅를 읊은 詩와 역시 조식이 李希顔에게 준 시 등을 들었다.

柳夢寅은 「於于野譚」에서 앞서 말한 申光漢의 시에 상세한 評說을 덧붙여 인용하면서 이 시는 譏諷의 뜻을 많이 담고 있다<sup>38)</sup>고 했다. 그 文節의 맨 앞에 ‘시는 風教와 관계되어야지 단지 物色을 읊조리는 것은 아니다’<sup>39)</sup>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시가 시담기 위해서는 한가로운 경물을 그리기보다 풍교의 뜻을 담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풍자의 뜻을 많이 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유몽인의 시의식을 엿볼 수 있다.

[小華詩評]을 編한 洪萬宗의 편찬의도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시를 배운 이래로 우리나라의 시를 얻어 살펴보았는데 시의 名家라고 하는 사람은 수백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위로 신라말까지 소급해도 거의 천년인데, 그 사이에 風教를 알고 美刺를 형성하여 이를 開闢抑揚하며 性情의 바름을 깊이 체득한 이는 唐宋에 견줄 만하고 후세에 모범이 될 만했다.<sup>40)</sup>

위의 말은 홍만종이 김중직의 말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홍만종 자신의 의도를 김중직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온 것이다. 문맥상으로 보아 風教의 뜻을 풍자적인 어조로 형상화시

37) 任廉 編, 「陽葩談苑」二冊 〈清江詩話〉, 詩人寓詠 大抵以含諷爲奇

38) 任廉 編, 「陽葩談苑」四冊 〈於于野談〉, 其詩多含譏諷

39) 앞의 같은 곳, 詩關風教 非直哦詠物色耳

40) 洪萬宗; 〈小華詩評〉卷之上, 「洪萬宗全集」下 p. 97, 自學詩以來 得我東詩 而詩之名家者 不過數百 由今日而上溯羅李 幾一千載其間識風教形美刺 開闢抑揚 深得性情之正者 可以頡頏於唐宋 模範於後世

키고 性情의 바름을 체득해야 우리 시인들이 중국과 겨룰 수 있다는 것이 김종직의 말을 인용한 홍만종의 의도이다. 이러한 홍만종의 시의식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집약되어 나타난다.

시는 事物의 情理에 도달할 수 있고 풍유를 나타낼 수도 있다. 만약 그 말이 世敎에 관련되지 않고, 뜻이 比興으로 표현되지 않으면 또한 徒勞일 뿐이다.<sup>(41)</sup>

말이 世敎와 관련되고 뜻이 比興으로 표현되지 않은 시는 한낱 徒勞에 불과하다는 것은 홍만종이 인용한 김종직의 ‘識風敎刑美刺’란 말이나 諷刺와 比興의 관계로 보아 바람직한 시의 특질이 풍자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홍만종은 이어 잘막한 評을 덧붙인 14수의 시를 諷警世하는 그와같은 시의 예로 들었다.

그 대표적인 詩題와 短評은 다음과 같다.<sup>(42)</sup>

拙翁 崔滋의 遞職後時：得失을 근심하는 이에 대한 경계 (警患得患朱之輩)

雲谷 鄭誦의 示兒時：분수를 모르고 함부로 求職하는 무리에 대한 경계 (警非分妄求之輩)

稼亭 李穀의 有感詩：사람의 물욕이 안에 가려져 있음에 대한 비유 (警人之物欲內蔽)

春沼 申嚴의 岐灘詩：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속마음엔 칼을 갖고 숨어있다 나타나 교묘하게 찌르는 자에 대한 비유 (比口密腹劍潛發巧中者)

侍中 崔承老의 禁中新行詩：음악을 諷戒하는 뜻이 있음 (有諷戒音樂之意)

亭齋 李稷의 登鐵嶺詩：참소를 걱정하고 비방을 두려워하는 뜻이 있

(41) 앞의 책, p. 103, 詩 可以達事情 通諷諭也 若言不關世敎 義不存於比興 亦徒勞而已

(42) 앞의 책 pp. 103~106.

음 (有憂讒畏讒之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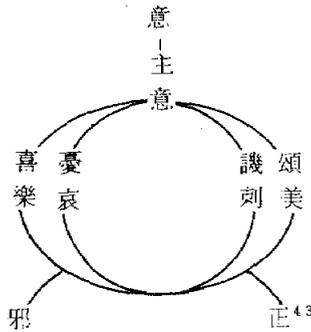
愼村 權思後的 放鷹詩：이익을 좇는 무리에 대한 경계 (警遂利之輩)

文學 辛藏의 咏木橋詩：祿俸을 구하는 무리에 대한 경계 (戒干祿之輩)

於于 柳夢寅의 伊州詩：백성들과 근심을 나누는 이가 鑑戒로 삼을 만함 (分憂子民者 可以爲鑑)

이들 시의 단평에 보이는 용어, 警·譬·比·諷·戒·畏讒 등은 앞에서 언급했던 풍자의 어의에 대체로 합치되는 것들이다.

申景濬의 경우, 풍자에 관련된 별도의 언급을 남기고 있진 않으나 [詩則]에 실려있는 詩意의 관련된 다음과 같은 도표가 관심을 끈다.



신경준은 主意를 ‘글의 본체를 이루는 것’(體文)이라 하였다. 따라서 시로 표현될 수 있는 주제로 讚美·諷刺·憂哀·喜樂을 들 수 있고 좌우에 배치된 正과 邪의 양면은 시가 올바른 정서를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sup>44)</sup> 풍자는 시의 주된 주제이며 필연적으로性情의 바름을 지향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

(43) 申景濬, 「旅庵遺稿」卷8 面10

(44) 趙柄愔, 申景濬의 詩則研究, 석사학위논문, 동아대 대학원, 1984

풍자시론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이는 아무래도 정약용이다. 그는 시경연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詩經講議], [詩經講議補遺], [詩經講議續集] 등의 저작을 남겼다. 이들 저작을 관류하는 핵심적인 요지는 諫書論에 있다. 시경의 시들이 단순한 민속가요의 채록이 아니라 권력의 밖에 있는 현인이 사회·정치적 모순을 隱微한 말로 비판하여 깨우쳐 善한 곳으로 이르게 하려는 풍자시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경론은 결국 풍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이를 삼백편의 시에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45)</sup>

다산은 풍자를 시의 존재의의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15국풍시를 재해석했다.

진실을 찬미하고 허위를 풍자하며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생각이 없으면 시가 아니다.<sup>46)</sup>

풍자는 作詩者의 본 뜻이다. 15국풍시의 뜻들이 혹은 선하고 혹은 악한 것은 다 時政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微言으로 풍유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感發하게 하려 함이다.<sup>47)</sup>

물론 다산의 견해가 전통적인 주자학적 관점에서 벗어난 것이긴 하나 여전히 권선징악의 교훈주의적·공리주의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있다. 이는 풍자 자체가 악의 교정이라는 교훈성을 전제로 하는 때문이다.

그는 풍자에 관한 체계적인 논리를 세웠을 뿐 아니라 많은 풍자시를 남겼는데 이들은 대체로 寓言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산 자신이 지적한 것처럼 사회신분상의 在下者가 治者를 비판하여 바르게 이끌려는 것이므로 감히 正言으로는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45) 丁若鏞의 詩經論과 詩意識에 대해서는 이미 김홍규님에 의해 깊이있게 다루어진 바 있다.

〈茶山の 詩意識과 詩經論〉, 民族文化研究14, 1979

(46) 全書 I, p. 443, 〈寄淵兒〉, 非有美刺勸懲之義 非詩也

(47) 「與猶堂全書補遺」V冊, p. 408, 若其風刺 則作者之本旨也 十五國風詩之旨 或善或惡 皆爲諷刺時政 微言以諷喻之 使人有感發之妙

風이란 諷이니 혹은 마땅한 도리를 늘어놓아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고 혹은 사물에 견주고 비슷한 것에 이어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하며 혹은 심원한 것에 가탁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기도 한다. 이것이 모두 諷詩의 體이다.……小雅篇의 작품들에 이르러서는 비록 比興에 가까운 것이 있기는 하나 그 志趣는 같지 않다.<sup>48)</sup>

다산은 풍자의 방법으로 세가지를 들고 있다. 鋪陣義理와 比物連類, 그리고 託寓深遠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풍자는 微言, 즉 隱微한 말로 諷諭하는 것이니만큼 正言으로 사실을 鋪陣하는 것은 풍자가 아니다. 위 인용문의 鋪陣義理란 마땅한 도리를 펼치어 늘어놓는다는 뜻이므로 풍자의 수사적 특질을 말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다산이 말하고 있는 풍자의 방법은 나머지 둘, 즉 比物連類와 託寓深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어 小雅와 國風의 변별요소로 比興의 유무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가 말한 比物連類와 託寓深遠이란 다름아닌 比와 興이다.

호랑이가 어린 양을 잡아먹으니

虎狼食羊豈

붉은 피가 찹고 있는 입술에 남자한테

朱血膏吻唇

호랑이의 위세가 이미 세워지니

虎狼威既立

여우와 토끼들은 호랑이를 어질다고 칭찬하네

狐兔贊其仁<sup>49)</sup>

위의 시에서 호랑이는 양민을 괴롭히는 목민관을, 어린양은 순박한 백성을, 그리고 여우와 토끼는 간사하고 교활한 아전이나 軍校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호랑이는 종종 양민을 괴롭히는 목민관이나 가혹한 정치에 비유되어 왔다. 호랑이의 위세와 목민관의 권세가 서로 상통하는 것으로 보고 우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산이 말하는 比物連類이다. 여우의 교활함과 토끼의 간사함 역시 마찬가지이다.

[48] 全書Ⅱ, p. 463, <六義>, 風者 諷也 或鋪陣義理 使自喻之 或比物連類 使自喻之 或託寓深遠 使自喻之 此皆風詩之體也……至於小雅 雖亦有近於比興者 其志趣不同也

[49] 全書Ⅰ, p. 80, <憂來十二章>第11

목민관을 도와 바른 정치에 이바지하여야 할 아전이나 군교가 탐학한 목민관의 교활하고 간사한 앞잡이가 되며 가혹한 목민관을 어질다고 찬양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유의 근거에는 孟子가 말한 苛政猛於虎나 虎假虎威와 같은 故事의 深遠한 교훈이 깔려 있다. 이른바 託寓深遠인 것이다.

다산은 諷刺의 功能이란 착한 일을 서술하여 깨우치도록 하거나 혹은 나쁜 일을 서술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이른바 美刺諷諭를 통해 感發하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다산은 풍자의 이러한 功能에 이르기 위해 作詩者가 사용하는 어조에 溫柔와 激切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溫柔諷諭의 뜻을 시의 존재의의로 생각했던 그의 시의식을 고려한다면 온유함과 적절함을 諷刺의 어조로 보는 것이 지나친 추론은 아닐 것이다.

다산은 만년에 風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다소 수정했다. 風을 諷으로 보던 종래의 견해를 바꾸어 음악의 명칭이라 했다. 그렇다고 해서 시경 시를 美刺諷諭의 관점에서 체계화한 자신의 견해를 바꾼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결음 더 나아가 풍자를 樣式的 특질이 아닌 시의식의 특질로 보고자 했다.

風이란 민속가요의 이름이 아니요, 풍자나 풍유를 이르는 것도 아니다. 風이란 바람이 땅위를 가는 데서 생긴 이름이다. 바람이 땅위를 가는 데에는 生育과 肅殺의 다름이 있다. 聲音의 道가 溫柔로 奏하여 生育의 氣를 얻은 것을 南風이라 하고, 사납고 맹렬하여 肅殺의 氣를 얻은 것을 北風이라 한다. 風이 드디어 樂名이 되었는데, 樂名을 風이라 일컫은 것은 虞舜의 南風詩에서 비롯한다.…… 풍자는 作詩者의 본뜻이다.<sup>51)</sup>

溫柔로써 奏한다 함은 가락의 온유함을 의미할 수 있으나, 시와 음악의 밀접한 관련을 고려할 때 읊조릴 때의 온유한 어조라고 볼 수도 있

(50) 全書 I, p. 232, 〈五學論三〉, 溫柔激切者 詩

(51) 注 (47)과 같은 곳, 風非民俗歌謠之名 非風刺風諭之謂也 風者風行地上之名 風行地上 有生育肅殺之別 聲音之道 奏以溫柔 得其生育之氣 謂之南風 其暴厲而得於肅殺之氣 謂之北風 風遂爲音樂之名 樂名之謂風 昉於虞舜之南風詩……若其風刺 則作者之本旨也

을 것이다. 사납고 맹렬하다고 한 표현 역시 앞에서 말한 激切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착한 일을 서술하여 깨우치게 할 때에는 溫柔한 어조가 되고 나쁜 일을 서술하여 깨우치도록 할 때에는 激切한 어조가 된다. 하지만 악을 교정하여 선한 곳으로 이르게 한다는 풍자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시 삼백편을 失意한 賢者와 聖人들이 시대를 근심한 작품으로 본 그의 시경론을 고려해 볼 때 다산이 말하고자 한 諷詩의 어조는 溫柔보다는 激切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溫柔함은 諷詩가 지향하는 세계이고 激切은 諷詩가 드러내는 어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송냥어여, 이리여

송아지 이미 채갔으니 양일랑 물지마라

장롱엔 속옷도 없고 시랑엔 치마도 없다

장독엔 소금 한톨 남지 않고 뒤주엔 쌀 한톨 없노라

큰 술, 작은 술 다 갖아가고 손가락, 젓가락 다 훔쳐갔네

도적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데 어찌면 이다지 못살게구나

살인자 이미 자살했는데 또 누구를 죽이려느냐

豺兮狼兮

既取我襜 毋筮我羊

笥既無襦 樵既無裘

甕無餘鹽 瓶無餘糧

鉤釜既奪 匕筋既攘

匪盜匪寇 何爲不藏

殺人者死 又誰戕兮

그가 강진에 유배된 지 9년째인 1809년에 지은 <田間紀事>중의 일부이다. 흉년이 들어 들에 풀 한포기 보이지 않고, 유랑민이 길을 매워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참상에 처해 있는데도 굶주리는 백성들을 토색질하여 마을을 황폐하게 만드는 아전들의 탐학과 백성들의 이산 등을 읊고 있다. 이 시의 서문에서 다산은 저주와 원망, 통곡을 담은 이 시를 ‘性情의 바름을 갖추었고 천지의 和氣를 잃지 않았다<sup>52)</sup>’고 평했다. 어조는 격절하나 그 지향하는 바가 온유하며 ‘失意憂時’하는 詩經詩의 정신을 살리고 있다고 본 때문이다.

다산은 溫柔하면서도 激切한 어조로 美刺勸懲하는 諷刺詩가 독자에게 환기시켜주는 정서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2) 全書 I, p.97, <豺狼三章>

53) 全書 I, p.96, <田間紀事序>, 要其性情之正 不失天地之和

風이란 飄이다. 혹은 착한 일을 서술하여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혹은 나쁜 일을 서술하여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기도 한다. 기뻐하며 분해하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뉘우치며 느끼게 하고 움직이게 한다.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하며 쳐서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도록 한다. 이것이 風詩를 지은 까닭이며 시가 천하의 가르침이 되는 까닭이다.<sup>54)</sup>

기쁨·분함·무서움·두려움·슬픔·뉘우침·감동 등은 飄詩를 읽은 독자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다산은 이러한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통해, 굳이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도 스스로의 잘못을 깨우쳐 詩人이 애초에 의도한 대로 선한 곳에 이르게 되는 勸懲의 功能을 발휘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산은 시경론과 관련지어 비교적 상세하게 풍자의 목적과 공능, 어조, 그리고 독자의 정서적 반응 등을 논하고 있다. 비록 이전의 문인들과 학문적 수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종합적인 관점에서 풍자를 논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소략하게나마 고전시학에서 논의되어 온 풍자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字典類의 訓釋을 통해 볼 때 飄은 ‘교훈이나 경계의 목적을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諫하거나 告하는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刺는 ‘責望이나 諫言의 뜻을 가지며 飄과 마찬가지로 비유로써 뜻을 전하는 것’이란 字義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飄刺의 語義는 ‘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잘못을 간언하면서 죄입는 것을 피하고 해를 입지 않기 위해 비유적인 표현으로 넌지시 돌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4) 全書II, p. 461, 〈國風〉, 風也者 飄也 或述善事 使自喻之 或述惡事 使自喻之 悅之憤之鬼之懼之哀之悔之感之動之 不提不挈 使自喻之 此 風詩之所以作 而詩之所以爲教於天下也

동양에서의 풍자론은 주로 시경국풍관과 관련지어 논의되어 왔으며 諷諫者의 도덕적 우월성을 전제로 한 美刺諷諭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풍자는 그 특성상 假托에 의한 비유적 표현, 즉 寓言을 표현방법으로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표리를 이루는 것이긴 하나 풍자는 대개 比·興에 의해 표현되고, 특히 比法에 의존한다.

풍자를 논한 중국의 대표적인 문인으로는 白居易를 들 수 있는데, 그는 풍자시가 지향해야 할 바로 補察得失과 勸善懲惡이 있다 하였다. 그의 諷諭詩論은 우리의 문인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풍자를 논한 우리나라의 문인들로는 權韓, 李濟臣, 張維, 洪萬宗, 申景澹, 丁若鏞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개 교화론 위주의 주자학적 시경론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의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心性의 도야와 溫柔敦厚를 강조하는 근엄한 禮敎主義에서 벗어나 통치자의 잘잘못과 시대의 절실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려고 노력했다.

풍자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두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불우한 처지에 대한 비탄이나 이해득실같은 개인적 차원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朝廷의 득실이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분강개와 같은 사회적 측면의 것이다.

풍자의 어조로 권필은 비웃음을 말하였고 장유는 微婉을 말하였으며, 홍만중은 譏刺를, 정약용은 激切함을 말하였다.

정약용의 경우, 풍자의 목적, 공능, 어조, 풍자가 독자에게 불러 일으키는 정서적 반응 등을 비교적 심도있게 언급하고 있다. 비록 하나의 글로 체계화해서 논한 것은 아니나 정약용의 풍자론은 비교적 精織한 논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